

## 大學의 根本思想

靜山

大學은 儒敎의 要旨를 가장 組織的으로 闡明한 바의 經典이다. 그 根本思想은 儒敎의 目的으로하는 「修己治人」以外에 무엇이 잇는 것이 안이다. 修己라 함은 自己의 智德을 研磨하는 것이오, 治人이라 함은 百姓을 다사리는 것이다. 換言하면 大學의 根本思想은 먼저 自己의 몸을 修養하고 그런 後에 이것을 基礎로 하여 天下國家에 推及코져 하는 것이다. 이것은 大學의 三綱領 가운데 잘 나타나 있으니 所謂 「三綱領」이라 하는 것은 「大學之道 在明々德 在親民 在止於至善」의 中에 잇는 明德, 親民 止至善의 三者이다. 그러면 이 三綱領이 如何한 意味에서 大學의 根本思想을 表明하는 것인가 하면 明德을 明한다는 것은 要컨대 自己의 知德을 研磨하고 己를 修하는 것이오, 民을 新(親)한다는 것은 自己의 明德을 基礎로 하여 天下國家의 人民을 統治하는데 잇는 것이다. 即 明明德은 學問德行을 힘쓰는 것이오, 親民은 社會的 功業을 積하는 것이다. 그리고 最後의 止至善이라 하는 것은 그 歸着點을 示한 것이니 그 心術을 至善에 置하여 遷移치 안는다는 意味이다. 다시 各 綱領에 就하여 詳述하면 左와 如하다.

(一)「明明德」 明德을 밝힌다는 것은 즉 「明德을 天下에 밝힌다」는 것인데 天下國家의 各 사람이 제각금 그 「道德的 本體」를 밝힌다는 뜻이다. 道德的 本體라는 것은 普通 말하는 良心이다. 朱子는 明明德을 解釋하여 「人□□□□□」이라 하고 「明德者 人之所得乎 天而虛靈不昧, 以具衆理而應萬事者也, 但爲氣稟所拘 人欲所蔽則有時而昏, 然本體之明則有未嘗息者 故學者當因其所發而遂明之 乃復其初」라 하여 先天 良心說을 主張하였다. 要컨대 明明德은 今日의 말로 하면 良心을 啓培하고 德性을 涵養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道德的 知情意를 研磨하는 것이다. 即 明明德은 본대 天下國家의 全般에 關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업스나 一面的으로 論하면 個人的 修爲의 方面을 述하였다고 볼 수 잇는 것이다. 그것은 大學의 思想에 從하면 天下國家의 單位는 個

人이니 爲先 그 個人이 各自道德的으로 되지 안으면 到底히 明德을 天下에 밝힐 수 업는 까닭이다. 「自天子以至庶人壹是皆以修身爲本亂而未治者否矣」의 句는 遺憾업시 이것을 表明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明明德 根本思想이 實踐的 表現이 되야 格物, 致知, 誠意, 正心修身的 道德說이 成立되는 것이다.

(二)親民 此語는 古註와 程朱註와 서로 相異한 바 잇스니 則 古註에 依하면 「親民는 親愛의 뜻이니 天下國家의 人民을 親愛하는 것이다」하엿슴에 反하여 程子는 下文의 「日新」의 句를 對照하여 新民 則 民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朱子는 程子の 說를 繼承하여 「新者革其舊之謂也, 言既自明其明德, 又當推以及人, 使亦官以去其舊染之汚也」라고 解釋하였다. □□□□□□는 사람 □□□□□□는 다 □□ □를 □□도 □를 主□ 또는 □□□□□ □□의 數로 본다면 朱註의 便이 만히 崇奉되고 잇는 것 갓다. 그러므로 新民으로 解釋하려는 바이다. 그것은 古註와 갓치 人民을 親愛한다고 解釋한다면 아마도 大學의 目的의 한 折半되는 治人에 對하여 說明이 弱한 것이다. 大蓋治人은 天下國家의 政治를 道德化하여 至善에 止함에 잇는 것이어늘 다만 人民을 親愛한다고만 하면 不足한 듯한 嫌이 업지 못한 까닭이다. 그런데 程朱의 註와 갓치 新民이라고 解釋하면 그 意義가 가장 積極的으로 되야 舊染의 汚를 去하고 人民을 一新케 할 수 잇는 것이다. 썬만 아니라 新民이라는 것은 近代思想의 趨向에 一致하는 것이다. 卽 近代의 思潮에 依하면 人格者는 擴充性을 有하고 이로 말미아마 社會를 化할 수 잇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程度는 該者의 人格이 偉大하면 偉大할수록 이것을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나 擴大할 수가 잇는 것이다. 그래서 道가 社會的 客觀的으로 確立하는 것이다. 그런데 程朱의 說은 明明德(自己修養)과 新民(社會的 功業)이 훌륭하게 契合되여 다시 餘蘊이 업는 것이다.

由來 明明德과 親民(新民)이라 함은 그 間에 自然的 關係를 有한 것이다. 大蓋明德을 밝히고 良心品性을 練磨確立하는 것은 그 自身으로서는 單純히 明德의 發揮, 卽 道德的 品性の 樹立에 不過한 것이나 이것을 社會的 客觀的으로 考察할 새에는 人格的 擴充性의 原則에 依하여 社會國家도 또한 一般的으로 그 影響을 蒙하여 善化할 수 잇는 것이다. 例컨대 한 大偉人이 輩出하면은 이를 圍繞로 하여 幾多의 人材가 出現되고 必然的으로 社會 全體의 水漬을 呑히는 것과 갓흔 것이 卽 이것이다. 하물며 程朱의 說과 갓치 自己完成의 曉頭에 此를 基礎로 人民을 새롭게 한다는 것임이라 여기에 東方思想의 根本主義인 政教一致가 可能하게 될 것이다.

(三)止至善 至善에 止한다 함은 깊게 얏게 高尚하게 卑近하게 解釋할 수

잇는 것이나 大學의 精神으로 살필 때에는 要컨대 各人의 맛당이 할 바를 하고 그 맛당이 行할 바를 行하여 써 私慾에 肅기지 안코 道德의 根本主義에 安住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至善은 반다시 今日 所謂 「倫理哲學 上의 最高善」이라는 意味 뿐만 아니라 至善은 「善의 極致」로 命名한 것인즉 世 所謂 「道德的 品性의 狀態 以下의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關係서도 古註와 朱註와의 相異한 點이 잇스니 則 古註에 依하면 止於至善이라는 것은 「善을 行함에 그 極에 達치 못하면 民을 治할 수 업고 一出一入에 操守함이 업스면 써 民을 化할 수가 업다는 것이다. 그럼으로 「至한 善에 止한다」는 것이다. 그런대 朱註에 由하면 顯著히 形而上學的으로 되어있다. 「止者必至於是而不遷之意 至善則事理當然之極也, 言明明德新民 皆當止於至善之地而不遷 蓋必其有以盡夫天理之極而無一毫人欲之私也」라고.

至善이라는 것은 事理當然의 極致이니 性의 極致를 극진히 하여 一毫라도 私慾의 念이 업는 境地를 이룸이다. 換言하면 宇宙의 本體인 「理의 世界」의 表現이며 形而上의 境界이다. 그리고 明明德이나 新民이나 다 止至善의 境界에 到達치 못하면 아즉 完全充分하다 할 수 업는 것이다. 이 二說은 至善을 해석하여 「善의 極致」라 하는 點에 잇서서는 조금도 다른 바가 업다. 그러나 그 內容에 잇어서는 相異가 잇는 것이다. 무엇이나 하면 前者는 至善을 單히 「行不越規」라는 品性의 境地를 가르쳐 말함에 對하여 後者는 「理本位의 觀念을 세워 顯著히 宋學化하였다.

最後に 이 大學의 綱領을 總括하여 考察하면 그 要領은 大學教育의 道는 第一 個人的으로 明德을 밝히고 (品性의 樹立) 第二 社會的으로 백성을 새롭게 하고 (樹立된 品性을 根本으로 하여 天下國家를 道德化함) 第三 修己治人의 歸趨로써 至善境에 止한다는 것이다.

문저 이 三者의 關係에 對하여 說明하면 明德을 밝힌다는 것은 大學의 道를 주로 하여 道德的 方面對己의 方面으로 觀察하여 論한 것이지만 民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와 反對로 政治的 方面 對社會民衆의 方面으로 觀察하여 論한 것이라고 볼 수 잇는 것이다. 無論이 兩者의 先後本末를 論하려면 그것은 自己를 道德化하는 것이 先이 되고 本이 되는 것이며 天下國家의 民衆을 새롭게 하는 것이 後이 되며 末이 되는 것이다.

大蓋 各個人이 제 自身을 完體가 되기까지 養成할 것을 努力지 안하고서 他人을 道德的으로 感化식하며 天下國家의 政治를 經營함과 갓흔 것은 한 空想에 不外한 砵답이다.

그러면 前二者와 止於至善과의 關係가 엇저한 것이냐 하면 止至善은 大學道의 倒着點, 即 歸趨이오, 明明德(道德)과 新民(政治)의 結合點이다. 그럼으로

로 止至善은 明明德과 新民과 갖치 大學道の 方面을 指示한 것은 아니다. 차라리 大學道の 各方面의 統括點의 指示라고 할 것이다. 마치 幾多의 光線이 「렌즈」를 通過하여 燒點을 結함과 同様이다. 그리고 이 止至善의 觀念이 無하면 大學의 道를 闡明함에는 不充分을 免치 못할 것이다. 그 理由는 單只 大學의 道에는 明明德과 新民의 二方面뿐만 잇다면 아직 그 程度-契合點이 分明치 못하고 杳라서 儒敎根本思想의 系統的 叙述로서는 到底히 完全치 못할 것임으로 쓰이다. 이것이 三綱領 相互 間의 關係의 解釋이다.

그러면 그 根本思想(三綱領)이 實踐倫理 上 如何히 表現이 되며 政治思想 上 如何히 現發되는 것인가?

前에 述한 바와 갖치 大學의 根本思想은 修己와 治人이니 儒敎의 目的도 이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大學의 綱領을 示할 뿐이오, 그 詳細한 方法을 指示한 것은 아니다. 그럼으로 여기에 修己의 方法은 如何히 하며 治人의 方法은 如何히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生길 것이오, 倫理(修己)와 政治(治人)에 關한 具體的 案件이 講치 안을 수 업는 바이다.

이 二方面의 思想은 八條目이라고 稱하는 가운데 가장 條理井然하게 說明하여 잇는 것이다.

條目 이른바 八條目이라 함은 古之欲 明明德 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先致其知, 致知在格物」의 中에 나타난 平天下, 治國, 齊家, 修身, 正心, 誠意, 致知, 格物의 八者를 이룸이다. 이 八條目의 中에 平天下, 治國, 齊家의 三條目은 主로 治人 即 政治에 干係하고 爾餘의 修身正心, 誠意, 致知, 格物의 五條目은 修己 即 實踐倫理에 關한 것이다. 그럼으로 儒敎-大學의 道-의 道는 其 根本이 修身-明明德-에 存하고 其 又 最 根底가 致知, 格物에 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以下順次로 「大學」修身의 道를 明確히 하는 바이다.

(一)格物 이 格物이라는 것이 大學의 道の 最 根底인 것은 上述과 如한 것이다.

그러나 格物은 무슨 意味이나 하는데 就하여야는 古來로 異說이 잇는 바이다. 即 朱子의 見解와 王子의 見解가 서로 不同한 바 朱子は 格物은 物에 格한다는 것인데 物은 事物의 理라고 하였다.

即 그 註에 이르되 「格至也, 物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라고. 그럼으로 朱子은 致知의 要는 一切事物의 理를 窮極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一切萬物의 理를 窮極하면 이에 知를 致할 수 잇는 것이라고 이리케 넓게 보는 것이다. 그런데 王子는 이에 反對하여 「物者事也 凡意之所發 必有

其事謂之物 格者正也 正其不正以歸於正也」라고 狹的으로 解釋하였다. 그럼으로 王子는 格物이라는 것은 「物을 格한다」는 것인데 그 事物을 格正히 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兩者의 說를 比較할 때에는 「物」은 朱子에 있어서는 理, 王子에 잇서는 意. 「格」은 朱子에 잇어서는至, 王子에 잇어서는 正. 이러케 相異한 바가 잇는 것이다. 近來에 江希張 갖은 이는 格物이라 함은 「格去物欲」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二)致知 格物에 對하여 朱王 二家의 間에 議論이 달녓스나 또 이 致知에 對해서도 說明이 一致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朱子의 說에 依하면 「致知」라 함은 「知를 致함」이라 하여 知識을 開發한다는 것이다. 그의 註를 보면 「致推極也 知猶識也 推極吾之知識 欲其所知 無不盡也」라고.

大蓋 自己의 知識을 廣汎하게 深奧하게 推極하여 天下一切의 事物에 知無不盡케 한다는 것이다. 이에 對하여 王陽明은 朱子의 解釋을 너무 廣汎한데 지내친다고 하여 致知를 「知를 致함」이라고 狹義的으로 解釋하였다. 「致者至也(中畧) 言知至至之 知至者知也 至之者致也 致知云者 非若後儒所謂 充廣其知識之謂也致吾心之良知焉耳」라고. 即 致知에 關한 朱王 二子의 說은 差異가 顯著하다고 할 것이다. 大蓋 하나는 普通 이른바 知識을 推極하여 外部的 打開 即 事々物々の 理致에 通치 안음이 업는데에 이르고져 하고 하나는 吾人 自身의 內部에 本具한 先天 良知 (心의本體)를 致하여 (直覺的)物을 바르게 하려고 한 것이다.

「格物致知」全體에 就하여 總括的으로 考察할 때에는 其 意가 朱子에 依하면 「知를 致함은 物을 格함에 잇다」하고 王子는 「知에 致함에는 物을 格함에 잇다」고 한 것이다. 그 內容에 잇어서는 前者은 知識을 얻기 위하여 事々物々の 理를 推極하는 것으로써 本旨로 하고 後者는 眞知에 이르기 위하여 自己本具의 先天 良知를 直覺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럼으로 그 要領은 朱子에 잇어서는 客觀的 知識의 蒐集이 되고 窮理主義가 되고 先知後行說이 되지만은 王子에 잇어서는 先天 良知의 知識-主觀的 打開-로 되고 直覺主義로 되고 知行合一說이 되었다. 이것이 朱王 二家의 哲學思想의 相異한 바이다. (未完)

右는 現代 知儒의 學說을 紹介하기 爲하여 茲에 譯載함